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17회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정식

제17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정읍시 선수단의 사명감 고취 사기 진작을 위한 출정식이 지난 8일 정읍시 콤포두 리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정읍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출정식에는 이학수 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임승식 도의원 최규철 정읍시 체육회장과 각 종목별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참가선수 모두 최선의 기량을 펼쳐 정읍시의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촌마을 생활불편 노후시설 보수 지원 나서

정읍시와 (사)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난 8일부터 입암면을 시작으로 전동, 콘센트 등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방충망 교체 등 생활불편시설을 보수해주는 마을기술사업단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기술사업단 사업은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연계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시설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북부권역 4개면 33가구를 대상으로 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부권역(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의 5개 면지역 35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과장원 지역협력과장은 "마을기술사업단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중국 장가계와 어깨 나란히'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 받아... 국제적 위상 증명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인정 받았다. 중국의 장가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8개국 135개 지질공원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에 기대되고 있다.

11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인증서를 받았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내 5번째 지질공원이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개, 부안군 19개소 등 총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마위, 소요산 용암돛, 송계리 시생대 편마암, 명매기암,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마도, 웨니어,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이번 총회장에서는 전세계 지질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지질공원 운영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류, 전세계적 문제에 대한 지질공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 한국의 국가지질공원들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들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열린 홍보활동을 펼쳤다.

니콜라스 조로스(Nickolas Zours)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의장은 "전세계 지질공원이 더욱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이번 신규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들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모두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작답 양도투쟁 의미 되새기다'

고창 심원면 공산마을서 제36주년 기념식 열어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 기념사업회'가 11일 심원면 공산마을서 제3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심원면 공산마을 입구는 1985년 고창 삼양사 소작 농민들이 1949년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삼양사 소유의 간척지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벌인 곳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군 기관사회단체장 및 심원면, 해리면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재민 양도위원장의 기념사와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이경신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축사, 김상호 전 광산구청장의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이야기,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은 1949년 토지개혁에서 제외된 삼양사 소유의 간척지를 되찾기 위해 1985년 250여명의 농민과 학생들이 연대해 투쟁한

사건이다. 12차례의 협상을 통해 결국 평당 1881원(당시 평당 1만원 정도)에 유상 양도하기로 하고 2년간의 투쟁이 끝이 났다.

고창군과 기념사업회, 기념탑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기리고 농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 개최와 금년도에는 공산마을 입구에 기념탑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혁명의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토지 소유권을 두고 대다수에 맞선 싸움이 양측의 협의를 통해 농민들에게 양도된 사례는 유일하게 고창뿐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시장 "안전 최우선에 놓고 사업 진행할 것"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정읍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11일 정읍시청 본관 2층 중

회의실에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



해 아동관련 전문가(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이동센터), 아동, 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장산문화광장(삼암동 536) 일원에 약 1만 9000㎡의 규모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순천 등 5개 시군에 설치된 놀이터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 올해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아동 관련 전문가, 놀이터 전문가와 토론의 등을 거쳐 놀이터 선호도조사를 마쳤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장비 확대 설치

정읍시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정읍시는 안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가정과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C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응급장비 교체·신규 설치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일어난 수 있는 화재나 낙상, 건강 이상 등의 응급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역센터 2개소 응급관리요원 3명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장비를 배포하는 사업이다. 이번엔 보급되는 차세대장비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문감지기 등의 센서가 부착돼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자발적인 응급 호출시 소방서 등과 즉시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세계자살예방의 날 한창수 교수 초청 강연

부안군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2시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 부락회, 안전한 내마음'을 개최한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1년부터 매년 9월 10일 기념일로 있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민과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문화를 고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부는 현장접수, 생명사랑캠페인 및 사업설명회 등으로

진행한다. 2부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의 저자 한창수 고려대학교 교수(現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의 '무기력에 대처하는 나의 무기' 주제 강연은 오랜시간 코로나와의 싸움에 마음

이 지친 군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는 "빠른 사회 성장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의미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며 "부안군에 생명존중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부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8,543건에 58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하락(6.68%)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과 지역발전의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강조하였고 납부후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과포팀 또는 읍(재무팀), 면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